

시화호 간척지에서의 연체동물 연구의 필요성

제종길 · 신상호 · 구본주

시화호 간척지는 1994년 시화간척사업의 물막이 공사로 건조된 지역으로 과거 광활한 갯벌이 있었던 곳이었다. 시화호는 안산시의 대부도, 선감도, 불도, 탄도, 그리고 화성군을 연결하는 방조제로 형성된 간척호수이며, 호수는 내륙으로 깊게 만입되어 있다. 간척지는 호수를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에 놓여 있으나 남쪽의 간척지는 폭이 최대 4km 이상으로 수 백m에 불과한 북측 간척지 보다 훨씬 크다. 간척사업을 통해 담수호로 만들려던 본래 계획은 급속도로 악화된 호수의 수질 때문에 1997년에 시화호 배수갑문을 개방하여 해수를 유통시켜 현재는 해수호가 이다. 그러나 호수내의 수위를 평균해수면보다 1m 아래로 유지하는 탓에 넓은 간척지가 지난 8년간 노출되어 건조되었다.

시화호 간척지에는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주변 지역은 패총이 밀집된 곳으로 선사시대부터 패류의 채취가 왕성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이도와 대부도 등지에서 패총을 발굴된 바 있으며, 여러 가지 유물과 함께 굴, 백합, 피빨고둥 등이 나타났으나 수적으로 굴이 단연 우세하였다. 조선시대 이후 (아마 그 이전부터) 시화호 지역은 패류의 생산지로 유명하였으며, 간척사업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동죽, 바지락, 가리맛조개은 전국 생산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백합은 종패를 다른 지역으로 수출할 정도였다. 조선시대에는 현재 시화호 내의 우음도 주변에 궁살이 있었을 정도로 수산자원이 풍부하고 맛도 뛰어났던 곳이었다.

과거 이곳 갯벌의 형태는 매우 다양하여 생산되는 패류도 다양하였다. 지역의 조간대와 조하대에서 발견된 연체동물은 모두 50종이 넘었다. 국내 갯벌에서 생산되는 유용패류 대부분이 시화호 주변지역에서 서식하였다. 개랑조개, 떡조개, 맛, 동죽, 가무락조개, 백합을 비롯하여 낙지, 주꾸미, 바지락, 키조개, 피조개, 굴, 벚굴, 피빨고둥 등이 이곳에서 생산되었다. 그러나 시화호 간척사업이 시작된 이후 그 양은 현저히 줄었으며, 백합과 가무락조개 자원은 거의 사라졌다.

시화호 간척지에서는 노출된 퇴적물에서 이전의 갯벌 (또는 다른 형태의 서식지)에 살았던 패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가리맛조개는 우음도 주변에서 백합과 가무락조개는 형도주변에서 그리고 동죽은 여러 곳에서 대단위 개체군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일부 간척지 해안에는 죽은 패각이 밀려 들어와 0.5m 이상 쌓인 곳도 있다. 선감도 주변의 동죽인 경우는 1m²당 평균 150개

체가 넘었다. 그리고 각장이 70cm가 넘는 굴이 발견되었으며, 약 1,500년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연체동물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미 간척지가 개발되고 있다. 노출된 시화호 간척지는 서해안 지역에 서식하였던 연체동물이 환경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천하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연구를 통해서 연안 연체동물의 서식지 보전의 중요성으로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런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패총 등에서 나타난 연체동물의 종조성과 현생 종의 종조성이 차이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